

『혜빈궁일기』와 궁궐 여성 처소의 일상

정 병 설 *

-
- | | |
|-----------------|------------|
| 1. 머리말 | 4. 혜빈궁의 일상 |
| 2. 서지와 자료의 성격 | 5. 맷음말 |
| 3. 혜빈궁의 위치와 사람들 | |
-

초록: 『혜빈궁일기』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한문한글필사본 자료이다. 한문으로 된 부분도 있고 한글로 된 부분도 있는 필사본이다. 혜빈궁은 사도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람에게 불은 이름인 동시에 궁궐 처소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혜빈궁일기』는 혜빈궁 처소의 일지인 셈이다. 이는 궁궐 여성 지존 처소의 일지로는 유일한 것이다. 『혜빈궁일기』는 혜경궁 생애 전체에 걸쳐 남아 있지 않고, 1764년과 1765년의 이 년 치 두 권만 남아 있다. 불과 두 해의 기록에 불과하지만 유사한 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궁중여성사, 궁중풍속사 등의 연구에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혜빈궁일기』는 혜빈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안 인사와 제사 등 궁중 의식이고, 두 번째는 의식(衣食)과 관련된 기본 생활 정보이며, 세 번째는 내관, 궁녀, 여종들에 대한 관리이다. 구체적으로는 궁궐에서 간장이나 김치를 담는 일, 옷감을 나누고 염색을 하는 것, 단오, 유두, 중양절 등에 진상하고 하사한 물건 등을 볼 수 있고, 또 별감과 궁녀 및 여종들이 어떻게 근무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기록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내용들이 적지 않다.

핵심어 : 혜빈궁일기, 혜경궁, 사도세자, 궁중풍속, 궁궐여성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궁궐의 기록이야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도 궁궐의 역사, 문화, 풍속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일기 등의 편년체 자료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승정원일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임금의 비서실 일지로 임금의 공식적 언행은 물론 일거수일투족 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임금의 취향, 감정, 사고방식까지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임금에게는 『승정원일기』가 있다면 세자에게는 『동궁일기』가 있다.¹⁾ 이 밖에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등록』과 같은 편년체 기록들에서도 다른 자료에는 볼 수 없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는 임금과 세자 등 남성 지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지만, 대비, 왕비, 세자빈, 후궁 등 궁궐 여성의 삶은 거의 적혀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에도 그들의 사적인 삶이 미미하게는 보이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의 삶을 감조차 잡기 어렵다. 『계축일기』, 『산성일기』, 『한중록』 등의 궁중 관련 기록에서 약간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제한적이고 특수한 상황과 사람을 그린 것이라서 궁궐 여성의 일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밖에 여성 지존들과 그들의 친정 식구들이 주고받은 편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영조비 정순왕후, 순조비 순원왕후, 고종비 명성황후 등 남아 있는 자료의 양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안 인사 외에 주요 관심은 궁궐 밖의 문제라서 궁궐의 일상을 보여주는 부분은 적다.²⁾ 이런 자료 상황에서 『혜빈궁일기(惠嬪宮日記)』와 같은 궁궐 여성 처소의 일지는 궁궐 여성의 일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조선시대에 궁궐이나 관청에서는 그날그날의 주요한 업무를 기록해서 ‘일기’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승정원일기』, 『동궁일기』가 모두 그런 것이며, 『혜빈궁일기』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현세자부터 순종까지 36종 552책의 동궁일기가 소장 되어 있으며, 역주 작업을 진행 중이다.

2) 최어진, 박재연 2015 「정순왕후 한글편지의 내용과 가치」,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이승희, 2010 『순원왕후의 한글편지』, 푸른역사: 국립고궁박물관 편, 2010 『명성황후 한글편지와 조선왕실의 시전지』.

도 이런 것들과 근본적으로 상통하는 기관의 업무 일지다. 임금이나 동궁 처소의 일기와 같은 비중은 아니라도 대비, 왕비, 세자빈, 후궁이 사는 곳에도 구실아치들이 있으니 그들의 업무를 기록한 기록이 남아 있을 법 하지만 현재 전하는 것은 『혜빈궁일기』뿐이다. 혜빈궁은 사도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니, 『혜빈궁일기』는 그가 사는 궁궐 처소의 일지로 이는 궁궐 여성 지존 처소의 일지로는 확인된 유일한 것이다. 혜경궁은 사도세자가 죽은 직후 영조에게 혜빈이라는 호를 얻었으며,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는 아들 정조에 의해 혜경궁이라는 이름을 얻었다.³⁾ 『혜빈궁일기』는 혜경궁 생애 전체 그의 처소의 기록이 아니라, 1764년과 1765년의 이 년 치만 남아 있다. 불과 두 해의, 두 권에 불과한 기록이지만, 유사한 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아직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없으며 사전의 항목기술과 소장기관의 해제 정도만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⁴⁾ “전 세자빈 혜빈 홍씨가 거처하던 본궁 및 그 소속이던 용동궁(龍洞宮)의 업무일지를 대개 당번 내관이 기록하였다.”고 하였고, “각 전궁(殿宮)에는 내외에서 각각 기록하는 일기가 있는데 이것은 남성이 기록한 외정(外廷)의 일기이다.”라고도 하였다. 또한 “『혜빈궁 일기』는 순전히 행정일기이기 때문에 문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궁중생활의 풍속의 일면을 알 수 있고 궁중용어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고 평하기도 했다. 여기서 용동궁의 업무일지라든지, 남성이 기록한 외정의 일기라고 한 것은 자료 내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편 자료를 소장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해제에는⁵⁾ 전체적인 자료 상황을 기술하면서 “주로 객관적 사실의 기술은 한문으로, 대화는 국문으로 표기되는 경향이 발견된다.”고 했으나 이는 정확한 서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일상적인 문안 사정에 관한 대화, 곧 품달

3) 이하에서 혜경궁 홍씨를 가리킬 때 기본적으로 그의 대표적인 궁호인 ‘혜경궁’으로 칭한다. 다만 『혜빈궁일기』와 직결된 부분에 한해서는 혜빈궁으로 칭한다.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네이버 제공 온라인판, 한국학진흥사업단), 접속일자: 2017.6.8.

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의 『혜빈궁일기』 조 문학해제. 이경하 서술, 접속일자: 2017.6.8.

과 답변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수한 사건은 한글로 적었다고 하는 편이 더욱 정확하다. 이처럼 사전과 해제는 서지 사항은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한 서술이 있다. 이는 자료를 온전히 해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위의 해설에 공히 기록한 것처럼 『혜빈궁일기』는 궁중풍속이나 궁중어를 아는 데 도움이 적지 않은 자료이다. 궁중풍속이나 궁중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편년 사료나 조선 왕실이 멸망한 후 남은 궁녀 등과의 대담을 통해 얻은 정보로 약간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김용숙의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근래의 연구로 임혜련의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등을 들 수 있다.⁶⁾ 그러나 종전의 편년체 자료는 일상에 대한 것이 거의 없고, 구전은 20세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어서, 부족함이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혜빈궁일기』는 비록 작은 자료이지만 무척 소중하며, 단편적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드시 꼼꼼히 검토될 가치가 있다.

2. 서지와 자료의 성격

1) 서지

『혜빈궁일기』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총 2책의 한문한글필사본 자료이다. 한문한글필사본이라는 말은 ‘국한문혼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한문, 더 정확히는 이두식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한글로 기록되었다는 말이다. 한글로 기록된 부분은 “섬니내관 가라”처럼 혜경궁의 명령을 그대로 옮길 때이거나, 통상적인 문안 사정 등이 아니라 아랫사람의 잘못을 품달하여 그 판결을 듣는 내용 등 사안이 간단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혜빈궁의 내관, 내

6) 김용숙, 1987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임혜련, 2008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인, 별감 등의 행태를 아는 데는 한글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

『혜빈궁일기』 제1권은 1764년의 기록이며, 제2권은 1765년의 것이다. 각각 55장과 33장이며, 크기는 세로와 가로 29×20cm이다. 특이한 점은 제1권과 제2권의 페체가 확연히 다른 것이다. 제1권은 행초의 달필로 기록되어 있으며, 제2권은 해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권은 날에 따라 줄바꿈이 분명한데, 제2권은 한 줄 중간에 다음 날 일기가 기록되기도 하여,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구절이 앞의 날에 해당하는지 뒤의 날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제2권은 그날그날 일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무성의하게 기록된 듯한 부분도 없지 않다.

2) 자료의 성격

『혜빈궁일기』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쳐소 또는 기관의 일지이다. 혜빈궁이라는 기관에서 그날그날 일어난 일을 적은 것이다. 그날그날의 일이란 대개 임금과 왕비에게 문안하거나 아들인 왕세손에게 문안을 받은 일, 사당이나 묘소를 찾아가서 살피게 하거나 제사를 올리게 한 일, 어디로부터 진상품을 받거나 물건을 하사한 일이다. 문안은 거의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내관을 보내서 하게 했는데, 왕세손의 문안 역시 궁관을 보내는 식이었다. 기록된 내용은 거의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지만, 간혹 쳐소 내의 세시(歲時)에 대한 기사가 있고, 또 내관, 내인, 별감 등의 근무 문제와 특정 사건을 처리한 것도 보인다.

『혜빈궁일기』는 원칙적으로 일기이니 매일 기록이 있어야 옳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어떤 때는 빠짐없이 기록했지만, 어떤 시기에는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혜빈궁일기』 이외에는 궁궐 여성 쳐소의 일기가 보이지 않는 점, 『혜빈궁일기』가 불과 2년 치밖에 없는 점,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이 온전치 않은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자료 성격이 어느 정도 짐작된다. 궁궐 여성 쳐소에서는 일기가 공식적으로 요구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혜경궁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시도했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유야무야

포기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런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 『혜빈궁일기』의 기록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혜빈궁일기』 제1권 기록일

연도	월	기록일수	기록일
1764	1	30	전일기록
	2	29	전일기록
	3	29	7일 하루 빠짐
	4	30	전일기록
	5	29	전일기록
	6	30	전일기록
	7	28	27일 하루 빠짐
	8	12	
	9	16	
	10	1	1일자 하루치만 있음
	11	0	기록없음
	12	0	기록없음

『혜빈궁일기』 제2권 기록일

연도	월	기록일수	기록일
1765	1	7	
	2	5	
	윤2	7	
	3	10	날짜 표기가 되지 않은 날 이틀이 있음.
	4	8	
	5	8	
	6	11	
	7	13	
	8	10	
	9	8	
	10	6	
	11	10	
	12	3	

위의 표를 보면, 1764년 7월까지는 매일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7월 27일에 처음 기록이 빠졌다. 날이 바뀌면 새 종이에다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어서 계속 기록하는 방식이어서 27일치 기록이 실수로 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 26일 기록 뒤에 바로 28일 기록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27일의 기록이 빠진 것을 단 하루의 실수로 볼 수만 없는 것이 그 뒤로 계속 기록이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이 이후로는 일기 기록이 한 달에 평균 열흘 내외에 불과하며, 이 해 겨울은 아예 기록이 없다. 도대체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혜빈궁일기』의 기록이 갑자기 부실해지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부실 기록에 영향을 끼칠 만한 큰 사건은 있었다. 사도세자의 생모인 선희궁의 죽음이다.

1764년 7월 26일 선희궁이 죽었다. 선희궁은 왕실의 계통으로는 사도세자의 모후가 아니다. 사도세자의 모후는 영조의 초비인 정성왕후이다. 선희궁은 그저 사도세자를 낳아준 생모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니 선희궁은 공식적으로는 혜경궁의 시어머니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나 정리(情理)로 보면 혜경궁의 시어머니일 수밖에 없다. 신분이 낮은 선희궁은 혜경궁이 편하게 여기면서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궁중 어른이기도 했다.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부인으로 혜경궁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선희궁이었다. 『한중록』에서 그렇게 적고 있다.⁷⁾

선희궁은 영조에게 가서 아들을 죽이라고 권한 어머니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아들이 죽은 후 슬픔과 안타까움이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선희궁의 사인은 『영조실록』에는 병사로 되어 있고, 혜경궁은 『한중록』에서 마음의 슬픔이 몸의 병을 만들어 등창으로 갑자기 죽었다고 했지만, 7월 12일 아들 사도세자의 삼년상을 마치고 보름만에 죽었다는 것이 공교롭다. 자살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혜빈궁일기』를 보면, 선희궁은 삼년상을 마치는 제사를 치르러 경희궁에서 창경궁까지 행차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으로 죽었

7) 선희궁에 대해서는 정병설, 2012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제1부 선희궁 편 참조.

다면 그 보름 사이에 병이 악화된 셈이다. 더욱이 관련 기록에서 선희궁은 죽기 전에 건강에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만일 죽을 정도로 아팠다면 『혜빈궁일기』에 병문안 기록이라도 있을 터인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이인 7월 18일은 선희궁의 생일인데, 이때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기록하지 않았다. 시점과 정황으로 볼 때 선희궁의 자살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선희궁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혜경궁은 큰 충격에 빠졌다. 사도세자의 삼년상을 끝내는 제사에 온 선희궁은 혜경궁에게 “이 가을 지나면 우리 고부 모여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라고 했다고 한다.⁸⁾ 아들과 남편을 여읜 두 여인이 서로 슬픔을 달래며 살자고 약속했다는데, 그러던 선희궁이 훌쩍 떠나버린 것이다. 혜경궁은 “선희궁까지 돌아가시니 기댈 곳 없고 마음이 텅 빈 듯 망국하니라.”라고 했다.⁹⁾ 선희궁이 죽은 1764년 7월 26일 직후 바로 『혜빈궁일기』의 기록이 완정성을 잊어버렸으니, 궁주(宮主)가 제대로 경황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니 기록을 챙길 여력이 없고 관리가 소홀하니 일지 작성도 성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혜빈궁일기』는 혜빈궁의 공식 일지이지만 여성 처소라서 그런지 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승정원일기』나 『동궁일기』에 한참 못 미친다. 공식적 성격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현 매체를 보면 한문에 한글까지 섞여 있으며, 필체 또한 제각각이어서 행초서에서 해서까지 다채롭다 못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서술 형식도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는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때가 많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일지라고 말할 수 있다. 『혜빈궁일기』의 기록자는 한문 중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혜빈궁의 내관일 것이다. 그리고 기록된 내용이 혜빈궁의 명령이 중심임을 볼 때 명령 출입을 담당하는 승언벗내관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때때로 한글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내인이 간혹 간여했을 수도 있다. 이 자료 외에는 궁궐 여성 처소의 일지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현실까지

8) 혜경궁 홍씨(정병설 옮김), 2010 『한중록』, 문학동네, 149면. 이하 『한중록』 인용은 모두 이 책으로 하며 책명과 면수만 표시한다.

9) 『한중록』, 215면.

감안할 때, 『혜빈궁일기』는 개인의 비망록보다 약간 나은 수준의 공식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궁주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는 거의 기록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한다.

3. 혜빈궁의 위치와 사람들

1) 혜빈궁의 위치

세자빈인 혜경궁이 전생애에 걸쳐 공식 쳐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창경궁 경춘전이다. 경춘전은 1752년 정조를 낳은 곳이기도 하고 1815년 혜경궁이 죽은 곳이기도 하다. 1762년 윤5월 사도세자가 뒤후에 갈허자 혜경궁은 곧바로 궁 밖으로 나가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로 돌아와서는 가효당(嘉孝堂)이라는 집에 살았다. 『한중록』에 따르면 가효당은 경춘전 남쪽의 낮은 집으로, 사도세자 죽음 이후 혜경궁이 거려청으로 삼은 곳이다. 사도세자가 죽고 혜경궁이 처음 영조를 만났을 때, 혜경궁이 오히려 영조의 마음을 위로하니 영조가 감격하여 효성이 아름답다는 뜻의 가효당이라는 현판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혜빈궁일기』 1764년 2월 5일 조에는 혜경궁의 친정아버지인 영의정 홍봉한이 가효당에서 딸을 만났다는 기사가 있다. 이때는 아직 사도세자의 삼년상 기간 내이며, 더욱이 영조가 정조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만드는 처분을 하지 않은 때이다. 이로부터 보름 후인 같은 달 20일에 영조는 정조의 계통을 사도세자가 아니라 사도세자의 이복형인 효장세자로 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무렵 혜경궁은 거처를 가효당에서 경춘전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해 7월 사도세자의 삼년상이 끝나자 바로 사도세자의 생모인 선희궁이 죽었고, 이때 혜경궁은 선희궁을 위해 3개월 동안 복상을 하는 시마복(緇麻服)을 입었으니(『영조실록』 1764년 7월 26일조), 이 무렵에도 얼마간 가효당에 가 있었을 수 있다. 어쨌든 1764년 혜경궁의 주요한 거처는 가효당을 포함한 경춘전 경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정조 즉위 직후인 1776년 4월 26일조의 『일성록』을 보면, 사도세자가 죽고 얼마 후 혜경궁이 경희궁 양덕당(養德堂)을 거처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다.¹⁰⁾ 『승정원일기』 1764년 12월 22일 조를 보면, 이 달 26일 혜경궁이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긴다고 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혜경궁은 1764년은 창경궁 경춘전과 그 주변의 가효당 등에 주로 머물렀고, 1765년은 경희궁 양덕당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2) 내관, 내인, 별감

혜빈궁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았다. 혜경궁은 물론이요, 가까이서 혜경궁을 보좌하는 내인들이 있었고, 혜빈궁과 궁 밖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내관이 있었다. 『혜빈궁일기』는 궁내의 살림살이보다는 문안인사를 주로 기록했기에 내관과 관련된 기록이 많다. 내관에 대해서는 종전에 장희홍의 「조선시대 환관 연구」나 홍순민의 「조선왕조 내시부의 구성과 내시 수효의 변천」과 같은 성과가 있으나,¹¹⁾ 임금의 대전 내시에 대한 법제적 설명 외에 궁궐 기타 처소의 실제 인원 구성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치지 못했다. 여기서는 우선 기록이 완전한 1764년 1월에서 6월까지 반 년간의 기록을 통해 혜빈궁에 어떤 내관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기간 내에 혜빈궁에는 일종의 비서로 주로 문안인사를 담당하는 자비내관(差備內官)이 네 명이고, 주로 음식 재료의 검수 등을 담당하는 섬니내관이 두 명이며, 명령을 전하는 승언빗내관이 두 명이어서, 총 8명의 내관이 근무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 때 간행된 법전인 『대전통편』에 정해진 세자빈궁의 내관 정원 역시 8인이다. ‘差備內官’은 『혜빈궁일기』에서 “지비” 또는 “지비”로 쓴 것도 있으나 ‘자

10) 往在十餘年前，時予沖歲，壽賢以長番內官，給使於本宮。興祿，以慈宮承言色，隨行壽賢。每奏予曰，與興祿有同奏之事矣。當予進詣養德堂時，此輩隨來養德堂，即慈宮所御之堂也。此輩謂予沖歲必不知渠輩情狀，追予遊於堂後之苑。壽賢興祿以窮凶極惡之語，誘說於予曰，如此方可謂孝也。又奏某某士夫與渠輩，相親同此義理，可用於將來之人矣。予雖沖歲一聞已知，其爲亂逆。

11) 장희홍, 2003 「조선시대 환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순민, 2004 「조선왕조 내시부의 구성과 내시 수효의 변천」, 『역사와현실』 52, 한국역사연구회.

비'로 읽는 것을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다른 자료들의 다른 용례로 보아도 '차비내관'으로 읽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셈니내관은 한자로는 '薛里內官'으로 쓰는데, 선행연구들은 모두 '설리내관'으로 읽지만 '셈니'로 읽는 것이 옳다. 『혜빈궁일기도』도 모두 이렇게 적고 있으며, 또 황윤석의 『이재유고(頤齋遺藁)』에서는 '설(薛)'을 '섭'으로 읽는다고 했으니,¹²⁾ 결국 '섭리'나 '셈니'나 현실음은 '셈니'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혜빈궁의 차비내관은 안상형, 임봉후, 우홍귀, 김홍재의 네 명이다. 4월 8일조에 보이는 차비내관 김홍록은 한 번만 등장하고 더 이상 보이지 않으므로 '김홍재'의 오기 등 기록의 오류일 수도 있다. 음식과 관련된 일을 맡은 두 명의 셈니내관인 최석담과 임한장은 주로 제사 때 많이 파견되었다. 임한장은 1월 18일 별련시내관으로 나간 것을 빼고는 모두 셈니내관으로만 일을 했다.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2인의 승언빗내관은 박봉홍과 이홍록이다. 이 둘은 모두 처음에는 겸승언빗으로 출발했다가 승언빗이 되었다. 3월 3일조에는 이홍록을 겸승언빗이라고도 하고 승언빗이라고도 했는데, 겸승언빗을 승언빗으로 부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뒤에 보면 셈니내관 최석담과 김중윤이 승언빗에 결원이 생기자 승언빗과 겸승언빗이 되기도 했다. 박봉홍은 5월 21일 이후, 이홍록은 5월 13일 이후 더 이상 겸승언빗으로 불리지 않았다. 겸직의 딱지를 떼고 승진을 한 것이다. 한편 박봉홍의 경우에는 5월 19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예외적으로 차비내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명령을 전하는 승언빗의 성격 때문인지 혜빈궁의 내관 8인 가운데, 이 둘만은 모두 외부 사건과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다. 『영조실록』 1771년 2월 1일 조에 이홍록은 은언군과 가깝다는 혐의를 받아 심문을 받다가 죽었다고 했다. 또 『일성록』 1777년 1월의 여러 조를 보면 박봉홍은 내관 이경남의 아들로서¹³⁾ 가짜 윤음을 펴뜨린 혐의에 연루되어 유배를 갔다.

내관을 근무형태로 보면 장번내관과 출입번내관을 나눌 수 있는데, 임금의 대전

12) 又今京人呼內官管御膳者爲薛里。而薛音섭。如涉聲。『이재유고』「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

13) 내관의 족보인 『養世系譜』(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도 박봉홍의 부자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과 세자, 세손의 동궁에만 장번내관을 두었고, 다른 궁에는 모두 출퇴근을 하는 출입번내관이 있었다. 그리고 공주나 후궁 등이 있는 곳에는 상직내관(上直內官)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수시로 여러 일에 차출되었는데 별련시로 가기도 하고 협시를 하기도 하며 배행을 하기도 했다. 모두 거동을 따라가는 역할이지만 주어진 자리가 약간씩 다른 듯하다. 『혜빈궁일기』에는 여러 차례 “궁출입번내관팔원(宮出入番內官八員)”에 선물을 내렸다는 등의 기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 혜빈궁의 실제 정원이 여덟 명이며 그 모두는 장번이 아니라 출입번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전에 규정된 것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에는 지응한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명의 장무내관(掌務內官)을 두기도 하였는데, 특정한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 둔 임시적인 자리인 듯하다.

『혜빈궁일기』는 내관의 실제 역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자료이지만, 내인 또는 궁궐의 여종들과 관련된 내용도 흥미롭다. 내인은 ‘나인’으로 읽는 경우가 많으나 『혜빈궁일기』나 『한중록』 모두 ‘내인’으로 적고 있다. 내인을 ‘나인’으로 부르는 것은 초기 연구자들이 만난 일부 궁녀들의 서울식 발음을 궁중어로 오인한 탓으로 생각한다. 내인에는 내명부에 속하는 상궁과 시녀들이 포함되며 혜빈궁에는 정식 내인 외에 내인의 여종 또한 적지 않다.

1764년 2월 10일 메주를 나누어줄 때와 6월 15일 가을겨울 옷 명세에 나오는 혜빈궁의 궁비(宮婢)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궁(尙宮) 17명, 시녀(侍女) 21명, 수사(水賜) 7명, 수모(水母) 11명, 조비(阜婢) 1명, 방자(房子) 24명 (2월 10일)

오품 상궁, 육품 시녀, 수사, 수모, 방자, 배비(陪婢), 파지(巴只), 아지(阿之), 별도로 차출한 오품 상궁, 육품 시녀, 육품 시녀, 수사, 수모, 파지, 방자 (6월 15일)

상궁과 시녀는 품계가 있는 내인이며, 다른 사람들은 궁궐의 종들이다. 2월 10일 메주 진배 시의 혜빈궁을 보면 내인이 38명이고, 그 밖의 종들이 43명이다. 그런데 6월 15일 조를 보면, 앞에는 없는 배비, 파지, 아지가 더 있다. 수사는 무수리

로 알려진 궁궐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여종이고, 아지는 유모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지만, 수모 이하는 도대체 다른 이름들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지 않다.

수모는 『세종실록』(1423년 2월 10일조)에 ‘세수간수모(洗水間水母)’라고 해서 세수간과 관련이 깊은 듯하다. 옛날 혼례에 신부의 단장 및 그 밖의 일을 거들어 주는 여자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로써 보면 치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 듯하다. 파지, 방자, 배비, 각씨는 모두 궁궐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여종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인용한 부분 밖에 나오는 각씨(閣氏)는 유모나 수모와 함께 짹을 이룬 것으로 보아 허드렛일을 하는 어린 여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위의 인용에서 보여주는 차례가 그들의 지위를 순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한다.

『혜빈궁일기』에는 이들 내관과 궁비는 물론 궁성 수호 등 궁궐 내 각종 허드렛 일을 맡은 별감까지 포함하여, 그 실제 활동에 대해 흥미로운 내용이 얼마간 있다. 먼저 1765년 8월 15일 별감 조순득의 무리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고 하여 별을 준 사건이 있다. 포도대장이 친히 순찰을 도는 밤에 통금을 범하여 술을 마시고는, 발각되자 빙궁의 편지를 전한다고 속였고, 이 무리를 포도대장이 친히 심문하려고 포졸에게 맡겨두었더니 위력을 행사하여 풀려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승정원일기』에도 다음날인 8월 16일 조항에 실려 있는데, 우포도청의 계문을 소개하면서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빚은 죄인 귀매와 술을 마신 죄인 조순득 등을 형조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형조에서는 결국 임금에 명령에 따라 조순득에게 한 차례 엄형을 가한 후 평해로 유배를 보냈다.

또 1765년 2월 17일 조에는 김도홍이 딸 사비(私婢) 한매가 죽었다고 속여 궁밖으로 내보냈다고 하여 처벌을 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다. 김도홍은 역시 별감인 듯한데, 딸을 궁중에 그것도 사비로 넣게 되어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여 몰래 궁 밖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한매는 태 삼십 도를 치고 김도홍은 육십 도를 맞았는데, 판결의 마지막에 사절치장이나 때맞추어 잘 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궁비가 입는 옷을 궁에서 대는 것이 아니라 본가에서 대는 규례를 보여주는 것인데, 1764년 9월 1일 기사를 보면 용동궁 서원 김성경이 내인인 딸의 치장을 잘 차려주지 않았다 하여 처벌을 받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별감이나 궁궐 서리의 땔을 내인으로 넣는 경우는 『한중록』에서도 볼 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별감들이 땔을 내인으로 넣지 않으려고 요로에 청탁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한다.¹⁴⁾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별감들은 땔을 음양의 도리도 모르는 궁궐의 불쌍한 여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듯하다. 이 밖에 1765년 7월 17과 19일에는 불결한 제사 음식을 올렸다고 처벌을 받은 사약 차달운과 수모 작은년의 일을 볼 수 있다.

그리 넓고 크지 않았을 혜빈궁에 상주하는 궁녀만 38명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무수리, 수모, 방자 등의 여종들까지 합치면 실질 상주 인원이 육칠풍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8명의 내관과 사설 사찰을 포함한 별감직 외에 별군직 등 수비 인력을 포함하면 백 명 이상의 인원이 실질적으로 세자빈궁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현실적으로 혜빈궁에 속한 사도세자의 후궁과 자녀들의 집까지 포함하면 백수십 명의 대인원이 혜빈궁의 넓은 담장 안에 들어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혜빈궁은 작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궁궐 속에 또 하나의 작은 마을을 이루었던 것이다.

4. 혜빈궁의 일상

1) 문안과 선물

『혜빈궁일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문안 인사다. 그 가운데도 날마다 임금과 왕비에게 올리는 축일문안(逐日問安) 또는 일차문안(日次問安)이 압도적이다. 1764년 1월 1일조를 보자.

14) 『한중록』, 78면.

승정원, 홍문관, 종반(宗班), 부마도위(駙馬都尉), 오홍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金漢耆), 대전(大殿) 장번내관(長番內官), 세자궁 장번내관, 각 전궁(殿宮)의 출입번내관, 각 처소의 상직내관(上直內官), 의관, 별군직(別軍職), 액정서(掖庭署) 사알(司謁) 이하가 문안을 드렸다. (혜경궁께서) 답하였다. “알았다.”

대전과 중궁전(中宮殿)에 문안을 드렸다. 자비내관 안상형이 갔다가 돌아와 복명하였다.

왕세손(王世孫)이 궁관(宮官)을 보내 문안을 올렸다. 답하였다. “알았다.”

겸승언벗(兼承言色) 박봉홍이 아뢰었다. “오늘 (사도세자의) 묘소를 살펴보았는데 겸승언벗 이홍록이 별다례(別茶禮)를 드렸습니다. 셉니내관(薛里內官) 최석담이 하직하고 물러갔다가 돌아와 복명하는 뜻으로 아뢰나이다.”

궁의 출입번내관에게 주다례(晝茶禮)에서 물린 음식 세 그릇을 내렸다.¹⁵⁾

당시 혜경궁은 창경궁에 살았고 영조와 영조비 정순왕후는 경희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지는 않았고 매일 내관을 보내 문안을 드렸다. 이렇게 거처로 가서 문안을 드리는 것 외에 임금이 궁 밖으로 나가면 궁 밖을 나갈 때 출궁 문안을 드리고, 또 기우제를 올리는 곳, 또는 신위(神位)나 어진(御眞)을 모신 사당이나 능원에 거동하여 밤을 지내게 되면, 오후 문안으로 신시(申時,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문안을 드리고 한밤중에 다시 경야(經夜) 문안을 드렸다. 물론 환궁 시에도 문안을 드렸다.¹⁶⁾ 혜경궁은 늘 임금의 동정을 파악하여 문안인사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는데, 대궁(大宮)이라고 불린 사도세자의 생모인 선희궁에게는 정기적으로 문안인사를 드리지는 않았다.

혜경궁에게 문안 등 인사를 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아들 정조이다. 당시 세손이던 정조는 닷새에 한 번 정도 궁관을 보내 문안을 여쭈었다. 『한중록』에 의하면 정조는 매일 새벽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15) 甲申正月初吉日, 政院, 玉堂, 宗班, 都尉, 鱲興府院君, 大殿長番, 世子宮長番, 各殿宮出入番, 各處上直內官, 醫官, 別軍職, 摶庭署司謁以下, 問安, 答曰, 知道, 大殿中宮殿, 問安, 差備內官安相衡, 往還復命, 王世孫遣宮官, 問安, 答曰, 知道, 兼承言色朴鳳興達, 今日墓所奉審, 兼承言色李興祿別茶禮進, 薛里內官崔錫聃, 進去下直往還復命之意, 敢達, 宮出入番內官處, 晝茶禮退膳三器, 賜給.

16) 『은대조례(銀臺條例)』와 같은 승정원의 실무 규정집 같은 곳에서 ‘문안’ 규정을 살필 수 있다.

사람을 시켜 문안을 여쭈는 일을 날마다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밖에 혜경궁에게 인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친정 식구이거나 가까운 왕실 척족이거나 종실, 그리고 궁궐의 실무자들이었다. 아버지 홍봉한은 당시 영의정이었는데 딸을 찾아온 횟수가 1764년에는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에 한 번 있을 뿐이다. 1764년 후반기에는 기록이 일정치 않으니 더 찾아왔는데도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1764년 초반기의 기록으로 보아도 친정아버지가 궐내의 딸을 만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연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왕실의 척족은 정조의 서제인 은언군과 은신군이 관례를 드리고 문안을 왔고, 영조와 후궁 문씨 사이에서 난 딸인 화길옹주의 남편 능성위 구민화가 결혼을 하고 인사를 왔다. 그리고 1764년 3월 화완옹주의 양자 정후겸은 첫 벼슬로 장원서 봉사가 되어 인사를 왔고, 1765년 윤2월에는 처음 과거에 급제하여 인사를 왔는데 이때 혜경궁의 동생 홍낙임도 같은 과거에 급제하여 함께 왔다. 정후겸과 홍낙임은 동방 급제한 것이 인연이 되어 나중에 정치적으로 결탁하였는데, 이것이 후일 혜경궁 친정이 몰락의 길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혜경궁과 동년생인 작은아버지 홍용한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도 인사를 왔다.

또 선희궁 조카의 아들인 별군직 이성묵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와 조상 묘에 소분(掃墳)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기 전에 하직인사를 할 때 만났다. 종실 인사들도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동지정사(冬至正使)로 북경을 가기 전에 순의군이 혜경궁에게 인사를 왔다. 그리고 임금의 측근 무사인 별군직(別軍職)이나 궁성 호위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무예별감 등이 현감 등의 벼슬을 받아 하직할 때나 소분 차 또는 근친 차 하직을 할 때 인사를 왔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와 혜경궁 생일인 6월 18일, 그리고 작은설로도 불리는 동짓날(1765년은 11월 10일)에는 승정원, 홍문관, 종실, 부마, 부원군, 대전(大殿)의 장번내관(長番內官), 세손궁 장번내관, 각 전궁(殿宮)의 출입번내관, 각 처소의 상직내관(上直內官), 의관, 별군직, 액정서(掖庭署) 사알(司謁) 이하의 별감 등 대규모 문안단이 혜빈궁을 찾아왔다.

이들의 문안에 혜경궁은 답례를 잊지 않았다. 답례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음식, 주머니, 비단이다. 정조의 동궁에서 궁관을 보내오면 궁관들에게는

거의 음식을 먹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궤선(饋餚)’, ‘궤다(饋茶)’, ‘궤다담(饋茶啖)’이라고 적었다. 모두 음식을 먹인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아랫사람들에게는 주머니를 내리는데, 낭자라고도 하고, 구체적으로 황낭, 청낭으로 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머니 하나를 내리는 사람들은 별군직, 무예별감 등과 별로 비중이 높지 않은 종실 들이다. 그리고 왕자나 부마, 가까운 일가친척이나 왕실 척족, 비중 있는 위치에 있는 종실에게는 비단을 내렸다. 비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정주(鼎紬), 토주(吐紬), 색주(色紬)로 나눌 수 있다. 정주에는 백정주(白鼎紬)와 번홍정주(繙紅鼎紬)가 있고, 토주에는 백토주(白吐紬)와 색토주(色吐紬)가 있으며, 색토주에는 다시 초록토주(草綠吐紬)와 자지토주(紫的土紬, 紫赤吐紬)가 있다. 색주에는 분홍주(粉紅紬, 繢紅紬, 翻紅紬)가 있다. 『한중록』을 보면 영조가 김종수에게 녹주(綠紬)를 하사한 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녹주 곧 초록비단의 하사는 신하에게는 평생 또는 대대로 기억할 만한 각별한 은혜가 된다. 김종수 역시 이에 대해 특별히 글을 써서 남기고 있다.¹⁷⁾

2) 세시와 살림

작은 마을이라 할 수 있는 혜빈궁에는 앞에서 서술한 것 외에도 늘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진다. 1765년 4월에는 혜경궁의 딸 청연군주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사위는 흥은부위 김기성이었다. 또 1765년 6월에는 정조의 이복형제인 은언군과 은신군의 관례가 있었다. 이들은 1767년 12월에 혼례를 올렸다. 이런 행사 외에 철철이 시절에 맞는 행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거나, 각종 의례와 관련된 것이 중심이다. 그것을 월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월 : 정월 초하루에는 승정원, 흥문관, 종반(宗班), 부마도위(駙馬都尉), 오홍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 및 대전 등 궁궐 각 쳐소의 내관과 의관, 별군직(別軍職), 액정서(掖庭署) 사알(司謁) 이하가 문안 인사를 왔고, 왕세손은 궁관을 보

17) 『한중록』, 396면; 김종수, 『몽오집(夢梧集)』, 「사녹주어필첩발(賜綠紬御筆帖跋)」.

내 문안을 했으며, 또 임금과 왕비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초이렛날은 인일(人日)이라고 한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이날은 조정에서 동인승(銅人勝)이라고 하는 작고 둑근 거울을 각신들에게 나누어준다. 동인승에는 자루가 있고 선인(仙人)이 새겨져 있다. 『혜빈궁일기』에는 내선시(內瞻寺)에서 동인승 큰 것 두 개와 작은 것 한 개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1764년 1월 10일과 1765년 1월 9일에는 용동궁에서 세 첨을 진상했다. 1765년에는 세 첨을 혜빈궁의 출입번내관에게 내렸다고 했다. 용동궁은 사도세자의 속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세자 사후에도 여전히 세자빈에게 진상함을 볼 수 있다. 또 1764년 3월 2일과 1765년 2월 30일에는 용동궁에서 첨심미를 진상했다.

한편 정월 대보름도 큰 절기인데, 『혜빈궁일기』에 특별한 기사가 없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세손인 정조는 1764년 1월 18일 어머니가 계신 창덕궁으로 와서 2월 7일 경희궁으로 돌아갔고, 선희궁은 1월 21일에 와서 23일에 돌아갔다. 1월 21일이 사도세자의 생일이니 그것 때문에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2월 : 1764과 1765년 두 해에 걸쳐 2월 10일은 메주(末醬)를 나누어주는 날이다. “장은 주로 정월부터 삼월까지 좋은 날을 가려 담는데 이월 장이 가장 좋다.”¹⁸⁾고 하니, 이날 메주를 나누어주는 것이 이해가 된다. 『만기요람』도 그렇고, 『승정원일기』에도 각 궁의 공상 품목 가운데 메주와 김치만은 따로 적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물품임을 뜻한다. 또 『혜빈궁일기』에는 메주를 나누어주는 곳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이로써 혜빈궁에 속해 있는 집들을 알 수 있다. 동궁인 정조만 빼고, 군주, 현주 등 자녀와 사도세자의 후궁인 양제(良娣)까지 다 혜빈궁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5월 : 오월은 5일의 단오가 가장 중요한데, 이날을 전후하여 6월까지 많은 물품이 진상되었고 이것들은 다시 내관 등에게 하사되었다. 쑥, 마, 창포, 메주, 것

18) 백두현, 2010 「한글음식조리서에 나타난 조리법의 비교-장 담그는 법」, 『한얼한맛』 3-1, 한국식품연구원, 40면.

갈, 소금, 밴댕이, 부채, 우산, 신발, 옥추단, 의향, 부적, 대방전(大方甄), 장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부채와 옥추단은 단오절을 상징하는 물품이다.

4. 6월 : 6일이 유두절이다. 이날을 맞아 내자시에서 화소첩(畫梳貼)을 올렸고, 6월 15일에는 가을겨울 옷의 명세를 작성했고, 또 이 무렵 남염(藍染)을 했다 (1764년 6월 22일과 1765년 6월 10일). 6월 18일은 혜경궁의 생일이라 정월 초하루처럼 여러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왔다.

5. 7월 : 18일은 선희궁의 생일이며, 선희궁은 또한 1764년 7월 26일 죽었다. 이 바람에 『혜빈궁일기』의 7월은 거의 선희궁과 연관되어 있다.

6. 8월 : 10일에 김치용 재료를 공급했다. 2월 10일 메주를 공급하는 것과 짹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추석 전이니 아직 김장을 하기는 이른 시기여서, 이것은 배추김치가 아닌 무청이나 다른 재료로 담근 다른 김치가 아닐까 추정된다. 이덕무는 『사소절』의 ‘저(菹)’ 조항에서 무청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두 김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⁹⁾

7. 9월 : 9일에 중양절이 있는데 장원서(掌苑署)에서 국화를 올렸다. 1764년은 9월 21일, 그리고 1765년에는 10월 12일에 김치 담글 소금을 내수사에서 올렸다. 이 때 김장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9월 22일은 동궁인 정조의 생일이다.

8. 10월 : 1일 내의원에서 육향고(六香膏)를 진상했고, 상의원에서 당돈피(唐獵皮) 등을 올렸다.

9. 11월 : 10일 동짓날에 아랫사람들에게 팔죽을 내려주었고, 전약(煎藥), 달력, 옷감 등을 진상 받았다. 속과 멜나무 등을 내관들에게 내려주기도 했다.

19) “淹菜曰菹。蕪菁蔓菁蘿蔔茄子與菘之屬，皆可沈菹。俗名沈菜。”

10. 12월 : 1765년 12월 5일에 납약(臘藥)을 진상 받았고, 다음해 봄여름 옷의 명세를 작성했다.

5. 맷음말

궁궐은 조선 사회의 핵심에 있다. 정치, 행정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중심이다. 그런 궁궐에서 가려진 곳이 있으니 바로 여성 처소이다. 남성들만큼이나 여성이 많은 궁궐이지만 궁궐에서 여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알려진 것이 매우 적다. 이런 상황에서 궁궐 여성 처소의 일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혜빈궁일기』는 사도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가 머물렀던 처소의 공식일지이다. 아쉽게도 이 일기는 1764년과 1765년 이년 치만 남아 있다. 지금까지 이 중요한 자료는 이두식 한문에 행초로 필사된 부분이 많고 거기마다 한글필사체까지 섞여 있어서 판독이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한문과 한글 필사체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초서와 공문서 투식까지 알아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거기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당대 궁궐의 전후 상황까지 알아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 자료는 혜빈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안 인사와 제사 등 궁중 의식이고, 두 번째는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생활 정보이며, 세 번째는 담당 내관, 내인, 여종 및 별감 등에 대한 인사 관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궁궐에서 간장과 김치를 담는 일, 옷감을 나누고 염색을 하는 것 등에 대한 것과 단오, 유두, 중양절에 진상하고 하사한 물건들 등 흥미로운 내용이 적지 않다. 특히 내관, 내인이 어떻게 근무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 등은 다른 기록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내용이다. 『혜빈궁일기』는 궁중풍속사 특히 여성풍속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논문투고일(2017. 2. 1),	심사일(2017. 5. 18),	제재확정일(2017. 6. 19)
--------------------	-------------------	--------------------

참고문헌

- 『혜빈궁일기(惠嬪宮日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온라인판.
-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온라인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제공 온라인판, 한국학진흥사업단.
- 김종수, 『몽오집(夢梧集)』,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온라인판.
- 혜경궁 홍씨(정병설 옮김), 2010 『한중록』, 문학동네.
- 김용숙, 1987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 정병설, 2012 『권력과 인간-사도세자의 죽음과 조선왕실』, 문학동네.
- 장희홍, 2003 「조선시대 환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순민, 2004 「조선왕조 내시부의 구성과 내시 수호의 변천」, 『역사와현실』 52, 한국 역사연구회.
- 임혜련, 2008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두현, 2010 「한글음식조리서에 나타난 조리법의 비교-장 담그는 법」, 『한얼한맛』 3-1, 한국식품연구원.

Abstract

Hyebingungilgi(惠嬪宮日記 : A palace journal of the Crown Princess Hyebin [Hyegyeong]) and daily life of a palace

Jung, Byung-Sul

Hyebingungilgi is a palace journal of the Crown Princess Hyebin [Hyegyeong (1735-1815)] who was the mother of the King Jeongjo and the wife of Crown Prince Sado. She was appointed as a Crown Princess in 1744 and bestowed with the title of Hyebin after her husband's famous death in 1762, and also bestowed with the title of Hyegyeong upon her son's enthronement as King in 1776. She is famous for a writing *Harjoongrok* (Memoirs of Lady Hyegyeong) which is one of the most famous works in the Korean literary history.

Hyebingungilgi was the official journal written by persons working on the Palace. It is the only article as a official journal made by the palace owned by a female. It is held in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a literary Chinese and Hangeul manuscript book, total 2 volume, one in each year 1764 and 1765.

Hyebingungilgi which tells us what kind of things happened in *Hyebingung*, such as greetings and rituals and daily life. There are a lot of interesting contents such as making soy sauce and kimchi in the palace, coloring cloths. And there are not many content that rarely can be seen in other records as to how the officers and staff worked and how they were alive. It is a very important material for the research of the history of the Joseon palace, especially the history of the female in Joseon palace.

Key words : *Hyebingungilgi*, *Harjoongrok*, Lady Hyegyeong, Crown Prince Sado, Joseon palace